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3, 647-66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 지 연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를 확인하고, 부모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부생 233명을 대상(남자 122명, 여자 111명)으로, 과보호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우울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과보호 및 부모 과보호 하위요인 중 부모 밀착통제, 부모 투사적과보호, 그리고 우울 수준을 남자보다 여자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부모 과보호 및 과보호 하위요인, 자아탄력성, 우울 간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반면 여자는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만이 유의하였고, 부모 과보호는 자아탄력성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부모 과보호가 남자 성인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 과보호, 자아탄력성,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경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441 / E-mail : kjoh@yonsei.ac.kr

www.kci.go.kr

Bowlby의 애착 이론 이후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자녀의 성격 발달과 대인 관계, 적응 양식, 정신 병리의 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 왔다(Bornstein & O'Neill, 1992).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근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보호의 정의에 대하여, Levy(1931)는 '지나친 통제, 독립적 행동 저해, 과도한 접촉과 자녀를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Symonds(1949)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도와주며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진로 등에 부담감을 주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Parker(1983)는 과보호가 '지나친 통제, 간섭, 의존성 조장,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국내에서는 장대운(1993)이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정도에 맞지 않게 지나친 보호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과보호를 정의하고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이 있어 왔으나, 과보호적 양육은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박아청(1998)에 의하면 과보호적 양육은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반면, 자녀를 소유하거나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 통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특히 서양의 양육 방식을 기준으로 연구되었던 기존의 과보호가 애정이나 돌봄과는 구분되는 간섭 및 통제를 가리켰던 것과 비교할 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보호는 지나친 애정에 기반한 과보호라는 점에서 복잡한 속성을 지닌다. 한국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며 통제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한국적 과보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박은정, 1996; 이병래, 1991; 이원영, 1998).

최근 국내에서는 과보호적 양육에 '과잉기대, 과잉간섭, 투사적과보호, 밀착통제, 자녀분리불안'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차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과보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정은영, 2008; 정은영, 장성숙,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과보호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관심으로 연령에 맞지 않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간섭하며, 자녀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양육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과보호가 '지나친 간섭, 통제'라는 개념을 다루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교육에 대한 과잉기대', '지나친 애정으로 인한 부모의 불안', '자녀에 대한 과잉밀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과보호를 추가하여 보다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보호는 주로 돌봄 요인과 함께 양육의 하위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다. Parker(1979)는 과보호 성향이 높은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사회화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불안, 우울 등 내재화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높은 과보호가 불안,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Blatt, Wein, Chevron, & Quinlan, 1979; Barker & Merskey, 1982; Bennet & Stirling, 1998; Parker, 1981; Silove, Parker, Hadzi-Pavlovic, Manicavasagar, & Blaszczynski, 1991). 부모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내 연구들에서, 김혜영(2000)은 부모 양육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www.kci.go.kr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고, 문세민(2006)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권위주의적인 통제 및 과보호적 양육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송경섭(199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의 부족보다도 부모의 지나친 간섭, 통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모 과보호와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과보호는 문제 행동들과 정적 상관의 경향성을 보였고(문유선, 김도훈, 2001), 대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미, 2002).

선행 연구들은 부모 과보호의 영향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오욱진(1998)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모 과보호 하위요인 중 '의존성을 조장하는 과보호'가 관계지향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경로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 '통제적인 과보호'가 성취지향성을 매개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함을 밝혀, 과보호 내 하위요인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과보호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남자와는 달리 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과보호 중 과잉간섭이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부모의 낮은 돌봄은 우울, 불안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진 반면, 높은 과보호는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최근 도순희(2008)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와 방임적 양육이 우울,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방임만이 우울, 불안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과보호는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부모 과보호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과보호적 양육의 경우, 남자 자녀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여자 자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또한 과보호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매개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최근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오욱진(1998)은 부모의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격 유형인 '성취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매개 요인이 된다고 밝혔고, 이은희(1999)는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과보호가 인지적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이소미(2002)는 부모 양육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통제 소재'가 유의미한 매개 요인이라고 하였고, 이은희와 정순옥(2006)은 모의 과보호가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자아 정체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

www.kci.go.kr

은 성격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 등 개별 요인을 매개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아탄력성'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매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은 Block과 Block이 제안한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Rutter, 1987). 이해리와 조한익(2005)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인지적, 정서적 차원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의 매개 변인으로 볼 수 있겠다. 부모의 과보호와 자아탄력성, 우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거의 없으나, 자아탄력성이 정신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의 일부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강창실, 2008; 구자은, 2000; 이예승, 2003; 이윤주, 2004; 하현주, 2007), 유은애(2008)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등학생일수록 우울, 불안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고은정, 1996).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관한 이은미(2001)의 연구에서는, 모의 과잉 통제와 자아탄력성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과잉 통제가 여자에 비해 특히 남자의 자아탄력성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어, 과보호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신윤자(2005)의 연구 결과나, 부모 양육이 자녀의 부적응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도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과보호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도순희, 2008; 문경주, 오경자, 2002; 오욱진, 1998), 과보호, 우울,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33명의 남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22명(52.4%), 여자 111명(47.6%)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IRB 지침에 따라 연구 참가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 졌다.

www.kci.go.kr

측정도구

과보호 척도

한국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은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나타내는 '과잉기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과잉간섭',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밀착통제',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태를 나타내는 '투사적과보호', 자녀에 대한 과잉애착으로 인해 지나친 접촉과 애기 취급하는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애정과 불안을 나타내는 '자녀분리불안'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고, 4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정은영(2008)의 척도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현재 양육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모두에 대해 10대 후반까지의 기억을 회상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 과보호 .88, 모 과보호 .88이었고, 분석 결과,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각각 다른 변인들과의 유사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두 변인의 합을 '부모 과보호'로 통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의 합인 부모 과보호의 신뢰도는 .92였다.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의 측정을 위하여, 이해리와 조한익(2005; 2006)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내적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밝히고 있는 개인내적특성만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박은희, 1996; Rutter, 1987). 척도를 구성하는 8가지 하위요인은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능력',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낙관주의', '목표와 희망',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이며, 각 하위요인은 3문항씩으로 구성되고, 6점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리와 조한익(2005; 200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을 하였고, 표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통계 분석 시 요인 간 상관관계의 수치가 낮은 경우, 전체 변수 내에 이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전체 설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교적 영성을 제외한 구성요소간의 관련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종교적 영성을 제외한 7가지 하위요인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우울 척도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수정, 개정한 통합적 한국판

www.kci.go.kr

표 1.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1							
2	.46**	1						
3	.51**	.35**	1					
4	.40**	.33**	.24**	1				
5	.54**	.46**	.45**	.31**	1			
6	.67**	.31**	.60**	.31**	.39**	1		
7	.59**	.38**	.40**	.48**	.46**	.47**	1	
8	.22**	.02	.11	.26**	.29**	.15	.31**	1

1. 자기효능감 2. 문제해결 3. 감정 및 충동조절 4. 공감과 수용 5. 목표와 희망 6. 낙관주의 7. 의미 추구 8. 종교적 영성

** $p < .01$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극히 드물게 그랬다~거의 대부분 그랬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절단점(cut-off score)은 16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19.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9.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과 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에서,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 적합도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료에 잘 부합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차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자가 지각한 부모 과보호 전체 점수가 남자

www.kci.go.kr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전체 (N=233)	남자 (n=122)	여자 (n=111)	F	η^2
부모 과보호	91.26(17.96)	88.52(16.46)	94.27(19.11)	6.09*	.03
부모 과잉기대	22.12(5.92)	22.43(5.97)	21.77(5.87)	.74	.00
부모 과잉간섭	12.50(2.82)	12.25(2.55)	12.78(3.07)	2.13	.01
부모 밀착통제	19.03(5.11)	17.48(4.56)	20.72(5.16)	25.82**	.10
부모 투사적과보호	17.33(4.69)	16.60(4.49)	18.14(4.80)	6.38*	.03
부모 자녀분리불안	20.28(4.95)	19.75(4.45)	20.86(5.40)	2.95	.01
자아탄력성	96.34(12.54)	97.33(13.49)	95.25(11.36)	1.60	.01
우 울	14.74(9.36)	13.43(9.05)	16.18(9.53)	5.09*	.02

주. 표시된 값은 평균; (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과보호 하위요인 중 부모 밀착통제와 투사적과보호를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미하게 높게 보고하였다. 우울의 경우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아탄력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이 이러한 차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 크기값(η^2)을 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가 .01이면 효과가 작고, .06이면 중간, .14면 큰 것으로 본다(이학식, 임지훈, 2008). 성별은 부모 과보호의 총 변량 중 3%, 부모 투사적과보호 변량의 3%, 우울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의 크기는 작은 편이었다. 부모 밀착통제의 경우 총 변량의 10%를 성별이 설명하고 있어 효과 크기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부모 과보호, 과보호 하위요인, 자아탄력성, 우울 간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부모 과보호와 과보호 하위요인 중 과잉간섭, 투사적과보호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r = -.26, p < .01, r = -.25, p < .01, r = -.29, p < .01), 부모 과보호,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과보호, 자녀분리불안과 우울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r = .39, p < .01, r = .35, p < .01, r = .31, p < .01, r = .32, p < .01, r = .30, p < .01).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도 유의하였다(r = -.59, p < .01). 이에 부모 과보호가 본 연구에서 매개 변인으로 가정된 자아탄력성 및 종속 변인으로 가정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관련성도 유의하여,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의 상관만이 유의하였고(r = -.47, p < .01), 부모 과보호 및 과보호 하위요인은 자아탄력성,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과보호가 여자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적절치 않았다.

www.kci.go.kr

표 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74**	.75**	.85**	.89**	.71**	-.05	.20
2	.80**		.51**	.51**	.53**	.27**	-.10	.19
3	.61**	.36**		.62**	.62**	.39**	-.22	.23
4	.81**	.60**	.39**		.77**	.47**	-.06	.07
5	.84**	.52**	.49**	.69**		.60**	-.07	.16
6	.60**	.26**	.31**	.25**	.43**		-.07	.15
7	-.26**	-.08	-.25**	-.20	-.29**	-.22		-.47**
8	.39**	.23	.35**	.31**	.32**	.30**	-.59**	

1. 부모 과보호 2. 부모 과잉기대 3. 부모 과잉간섭 4. 부모 밀착통제 5. 부모 투사적과보호 6. 부모 자녀분리불안 7. 자아탄력성 8. 우울

주. 대각선 아래는 남자, 위는 여자

$^{**}p < .01$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부모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형으로 부모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변수들 간 관계 검증을 위해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값을 추정하였다. 완전매개 모형과 대안 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14, N = 122) = 32.98$, $p = .003$, CFI = .93, TLI = .89, RMSEA = .11로 χ^2검증의 영가설이 기각되고, 연구모형의 RMSEA와 TLI가 낮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만이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대안 모형으로서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13, N = 122) = 24.10, p = .03, CFI = .96, TLI = .93, RMSEA = .08로 χ^2검증의 영가설이 기각되고, 연구모형의 RMSEA이 다소 낮은 적합도를 보이나, TLI와 CFI는 각각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할 때,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χ^2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도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감소폭이 자유도의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모형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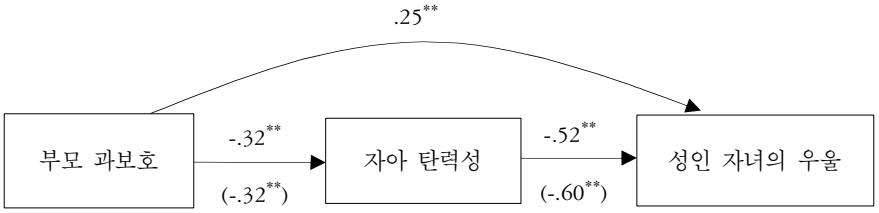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 모형과 경로계수

주. 괄호 안은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 p < .01

완전매개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triangle\chi^2$ = 8.88 > $\chi^2_{.05}(1)$ = 3.84, $\triangle df$ = 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를 확인하고, 부모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과보호와 과보호 하위요인, 자아탄력성, 우울 수준에서의 남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 과보호 및 부모 밀착통제, 부모 투사적과보호, 우울 수준을 남자보다 여자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부모 과보호 및 부모 투사적과보호, 우울에 대한 성별의 설명량은 작은 편이었으며, 부모 밀착통제에 성별이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중간 정도였다. 이외 부모 과잉기대, 과잉간섭, 자녀분리불안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자아탄력성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이은희, 1999; 정승환, 1998)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의 과보호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되었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측정했던 기존의 과보호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측정하고자 하였던 한국적 과보호의 경우, 부모의 지나친 애정과 기대, 부모의 분리불안이라는 요인이 더해진 특성을 지녔고, 이러한 과보호를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손석한 등(2001)의 연구에서, 남자들이 부모의 과잉간섭에 대해서는 더 높게 보고하지만,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부모로부터의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모의 애정에 기반한 한국적 과보호의 경우 여자 자녀들이 남자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 과보호와 자아탄력성, 우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부모 과보호 및 과잉기대를 제외한 과보호 하위요인이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 과보호 및 과잉간섭, 투사적과보호와 자아탄력성 간 상관이 유의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도

www.kci.go.kr

유의하였다. 여자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은 유의하였다. 그러나 부모 과보호는 자아탄력성 및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여자에 비해 남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도순희, 2008)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남자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에도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이었으나, 부모 과보호 및 과보호 하위요인들이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우울과의 관련성도 유의하지 않아,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과보호적 양육이 낮은 자아탄력성과 연관되며, 그 결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남자의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하였다는 것을 지지한다. 즉, 탄력성이 개인이 성장하면서 획득하는 개념으로(Hawley & De Haan, 1996; Wolff, 1995), 자아탄력성의 획득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술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위험 요인에 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는 경험이 중요하고(Howard, 1996; Knutson, 1995; Kolbo, 1996), 부모로부터의 과보호적 양육이 자녀들이 여러 새로운 도전 상황에 부딪히며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가능성을 차단하여, 이들이 성장하며 마주하는 새로운 상황들에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있어 남자와 구별되는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과보호 하위요인 중 부모 과잉간섭은 자아탄력성과 .05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던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밀착,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정서적 불안, 자녀의 곁에 지나치게 밀착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과보호는, 여자 자녀의 자아탄력성이나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과보호적 양육의 주요 특성이었던 '과잉간섭'과 같이 부정적인 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과보호는 자녀의 낮은 자아탄력성이나 우울 수준과 연관되나,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도입한 애정에 기반한 과보호의 경우, 특히 여자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애정에 기반한 이러한 과보호 및 부모의 밀착통제, 부모의 분리불안 등에 대해 여자는 남자보다 더 크게 지각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과보호 하위요인별로 남녀 자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의존성을 조장하는 과보호'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여자의 경우 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통제적 과보호'만이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과보호 하위요인별 특성에 따라 남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오욱진, 1998).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의 대상인 남자 표본의 수가 122명으로 크지 않고, 서울 소재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남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보다 다양한 연령 및 학력, 지역의 표본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표본 크기의

www.kci.go.kr

제한과 관련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수를 늘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에 의한 설문지를 통해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고 이렇게 측정된 변인들은 자기보고에 편향이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부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횡단적 상관 연구라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제한점을 가지는데, 즉 독립 변인의 조작이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모 과보호, 자아탄력성, 우울 간 관계의 방향성이 이론적,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독립 변인 및 매개 변인의 효과 크기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변인들 간의 인과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로에 대한 해석이 제한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므로,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이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 개발 과보호 척도의 경우, 이를 사용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추후 다양한 연령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과보호와는 구분되는 속성을 가진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과보호적 양육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과보호적 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제까지 국내의 부모 양육 관련 연구들에서 과보호는 서양에서 개발된 간섭과 통제 요인 위주의 척도를 사용해 연구되었음에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보호라는 용어로 설명하여, 과보호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과보호를 정의하고자 하였고, 지나친 애정과 부모의 분리불안이 추가된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과보호의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의 가설과 같이 부모의 과보호가 남자의 자아탄력성 및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과보호가 성인 남자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과보호가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과보호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매개 요인이라는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울을 호소하는 성인의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개입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부모 양육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의 적응이나 우울의 치료에 있어 자아탄력성을 개선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자의 경우, 부모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양육이 자아탄력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

www.kci.go.kr

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자들이 한국적 과보호를 지각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후 과보호적 양육 관련 연구들에서 남녀를 구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나아가 여자 자녀들이 부모 양육을 지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무엇에 기반한 것인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여자의 경우에도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자의 우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즉, 인지적 요소인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거나,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하고, 정서적 조절 및 표현 등을 돕는 등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설명하는 자아탄력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개입을 통하여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의 우울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순희 (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문세민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위축행동 및 우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유선, 김도훈 (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 행동의 연관성: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37-244.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 태도 현황-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송경섭 (199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

www.kci.go.kr

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욱진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애 (200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래 (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예승 (2003).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 연구 논문집, 13(1), 1-9.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5(2), 435-449.

이은미 (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희 (1999).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2), 213-239.

이학식, 임지훈 (2008). SPSS 14.0 매뉴얼. 법문사.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이해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 371.

장대운 (1993). 청소년 부모 교육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 건강, 6, 59-76.

정승환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생의 우울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www.kci.go.kr

Barker, B., & Merskey, H. (1982). Parental representations of hypochondriacal patients from a psychiatric hospit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233-238.

Bennet, A., & Stirling, J. (1998). Vulnerability factors in the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 311-321.

Blatt, S. J., Wein, S. J., Chevron, E., & Quinlan, D. 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88-397.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oness(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Bornstein, R. F., O'Neill, R. M. (1992). Parental perception and psycho -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80*, 475-483.

Hawley, D. R., & De 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 *Family Process, 35*(3), 283-298.

Howard, D. E. (1996). Searching for resili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Theoretical issues.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18*(4), 254-262.

Knutson, J. F.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ta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3), 401-431.

Kolbo, J. R. (1996). Risk and resilience among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Violence Victimization, 11*(2), 113-128.

Levy, D. (1931). Maternal Overprotection and Rejec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 886-889.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Parker, G. (1981).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s: an investigation of several explan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 131-140.

Parker, G. (1983). *Parental over- 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 chosocial Development.* Grune & Stratton, Inc.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Silove, D., Parker, D., Hadzi-Pavlovic, D., Manicavasagar, V. & Blaszczynski, A. (199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 835-841.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Wolff, S. (1995). The concept of resilience. *Australia and New Zeeland Journal of Psychiatry, 29*(4), 565-574.

원고접수일 : 2010. 2. 5.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0. 8. 24.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3. 24.
게재결정일 : 2011. 5. 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3, 647-661

The Effect of Parental Overprotection on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der

Ji yeon Kim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depression. Two hundred thirty thre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n parental overprotection,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emale stu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arental overprotection, adhesive control, projective overprotection, and depression than males. (2) For males, parental overprote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an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for females,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but parental overprotec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go-resilience or depression. (3) In the male group,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depression was mediated by ego-resilience. We also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arenting, parental overprotection, ego-resilience, depression

www.kci.go.kr